

# 신춘문에 당선작

## 시

### 오르골

이슬

나무의 뿌리들이 태엽을 감고 있는 시간  
누군가 상자뚜껑을 열듯 소리를 쏠아내는 나무들의 춤  
소리가 멎을 때까지 흔들리는 일에 환상이다  
울긋불긋 어지러운 현기증을 다 털어낸 자리  
나뭇가지를 뛰어 다니며 놀던 수액들은 모두 바람이 된다  
앞뒤를 보여주며  
숨기는 것 없다는 듯 보여주는 염록의 투명한 연주가 길다  
잎의 사이사이마다 음계가 반짝 거린다

새들이 앉았다 간 나무 밑 마다  
불안한 노래가 가득 떨어져 있다  
뿌리가 감고 있는 것은 깊은 어둠이다  
칸칸의 어둠에 앉았다 날아가는 새들  
가금 입을 털어내는 환한 시간이면 날아오르는 새들이 있다

가장 밝았던 한 때  
꽃잎의 치어들을 다 허공에 날려 보내고  
나무는 지금 푸르게 비어 있다  
꽃의 그늘이 진 자리에 초록의 소리가 가득 하다

바람의 흔적이 가득한 나무 속  
나이테를 돌아 풀어지는 태엽  
평생 춤출 곡이 빙빙 돌아 어지럽게 새겨져 있다.

푸른 치마를 입고 거꾸로 서서 흔들리는 듯  
바람이 상자를 닫는 시간  
음계들이 떨어진 나무 밑에는 그늘도 다 졌다  
나선형의 나이테 그 길이만큼 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시 당선소감

### 당선의 무게 큰 성장통 될 것



**이슬**  
▲1992년 용인 출생  
▲용인 동백고 2

각각의 사람과 사물에게는 그 고유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에게는 그 고유한 시간의 부피가 부족합니다.

또한 모든 관계에 사이가 있을, 저는 저와의 시차를 확인하려 스스로 사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저 다룬 것들과 멀리했던 그 사이를 오늘은 끌어당겨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응모 결과가 또 다른 시차를 제게 던져 주는군요. 시차 부족응시에 두통과 초조함을 유발하듯 당선이라는 무게는

저에게 부담과 불안함을 유발했습니다. 이것이 성장통의 한 종류라면 꽤 괜찮기도 하고 꽤 잔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미팅을 주선하듯 시와 만나게 해 주시고 아직 어린 자질을 칭찬해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무서운 박해랍 선생님! 이제는 제 두려움도 다독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늘 말씀하신 명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특히 엄마! 엄마와 함께 시를 공부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멀리 백일장에 갈 때 운전기사를 차려주신 아빠! 자만하지 말라시던 그 말씀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동생들, 함께 공부하는 경운서당 학동님들.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은 용인문화회 원님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읽었던 모든 시들과 부족한 시를 선택 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마음 속속 감사드립니다.

또 한 광주일보사의 선택에 누가가 되지 않는 시를 쓰겠습니다. 잊지 못 할 새해가 될 것 같습니다.

### <10면에서 계속>

줄 앉았는데 앉진 않았다. 손바닥에 작은 무개가 느껴지자 용기가났다.  
'그래, 진짜 사랑은 싸워서 지켜주는 거야.'  
마음을 굳혔다.  
"아빠, 이것 보세요."  
나는 그동안 써 놓았던 관찰일기를 아빠에게 내밀었다. 텔레비전을 보면 아빠는 관찰일기를 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텔레비전을 끄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나는 가만히 아빠 곁에 앉았다. 아빠는 한참동안 일기를 들여다보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필생각하는지, 손바닥으로 뺨을 문질렀다.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눈물이 쫄글거렸다. 나는 엄지손가락으로 방바닥만 문지르고 있었다. 앞으로 보리와 밀은 어떻게 될까?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말없이, 아빠가 나를 바라봤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놀이동산에서 차레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루한 시간이었다. 허락만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았다.  
"아빠도 산책할 때 도와주마. 그 나저나 위층아줌마 볼 낫이 없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걱정 마세요, 그거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방문을 박차고 거실로 나왔다. 엄마가 방그레 미소를 지었다.  
네가 다른 집으로 가게 되면 탈출해서 꼭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 번호 새 잘 기억해서 꼭 와야 돼. 우리 집 비밀번호는 9357이야.  
보리와 밀의 눈과 마주쳤다. 입을 종긋 내밀었다. 귀여웠다. 밥그릇과 물그릇을 씻었다. 먹이는 손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준다. 그래야 주인이 냄새를 기억하고 먹이 줄 때 가시를 세우지 않는다.  
아침에 주고 간 스무 알을 다 먹고 그릇을 뒤집어 왔다. 그릇을 깨끗이 씻었다. 벌써 나를 알아보고 가시를 세우지 않는다. <끝>

와드릴게요."  
방문을 박차고 거실로 나왔다. 엄마가 방그레 미소를 지었다.  
네가 다른 집으로 가게 되면 탈출해서 꼭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 번호 새 잘 기억해서 꼭 와야 돼. 우리 집 비밀번호는 9357이야.  
보리와 밀의 눈과 마주쳤다. 입을 종긋 내밀었다. 귀여웠다. 밥그릇과 물그릇을 씻었다. 먹이는 손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준다. 그래야 주인이 냄새를 기억하고 먹이 줄 때 가시를 세우지 않는다.  
아침에 주고 간 스무 알을 다 먹고 그릇을 뒤집어 왔다. 그릇을 깨끗이 씻었다. 벌써 나를 알아보고 가시를 세우지 않는다. <끝>

## 동화 당선소감

### "문헌 꿈들이 되살아났다... 이제 한걸음 뻗을뿐"



**이영아**  
▲1965년 광주 출생  
▲광주대 문창과 4학년

한 때 글을 쓰고 싶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씨앗을 뿌리고, 불쑥 불쑥 싹을 틔웠지만 돌보지 않고 잘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곳저곳에서 그 싹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문헌 꿈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꼭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비로소 한걸음 뻗었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분에 넘치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나를 이 세계로 이끌어 준 큰 언니 이경아가 고맙고, 격려아까지 않았던 광주대 문창과 교수님들

이 고맙고, 자신없어하는 나를 괜찮다, 괜찮다 일으켜 세워준 이경아 교수님이 특히 고맙습니다.  
못난 글을 합평해준 서구문화센터의 '손바닥발바닥' 회원들이 고맙고, 함께 살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동화책의 소재를 제공해 주는 지인아, 민석아, 고맙다! 눈물바람으로 기뻐해 준 팔십 노모가, 묵묵히 지켜봐주었던 남편이 또 고맙습니다.  
부족한 글 뽑아주시 심사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읽어보시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보답하기 위해서 재밌고 따뜻한 그래서 힘이 되는 동화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처음처럼, 한걸음씩!

## 동화 심사평

### "동화는 단순 명쾌성... 무난함 벗어나는 게 과제"

예시를 거처온 작품은, '책꽂이 오케스트라' '난 보이는 것만 믿어' '귀신 딱 당시기', '박수소리' '왼쪽 오른쪽' '깨어진 사과' '호족의 노래' '보리와 밀' 등 여덟편이었다.  
우선 동화도 '언어예술'이므로 쓴 사람이 하려는 말이 독자(특히 어린이)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문체면 것이 앞의 세 편 ('책꽂이' '난 보이는' '귀신')이었다.  
이 작품들은 작가가 분명 무슨 얘긴가 하고 있는데 (글쓴이만 알뿐) 무슨 얘긴지 독자에게 잘 와닿지 않았다.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동화는 특히 어린이를 중심독

자로 삼기 때문에 '단순명쾌성'이 요구된다.  
다음 '박수소리'와 '왼쪽 오른쪽'은 장황한 설명, 지나친 감상, 소재의 진부함, 교훈, 상상과 공상의 혼동 등 동화문학에서 삼가야 할 문제에 한 두가지씩 걸려있다. '깨어진 사과'는 한편의 '소설'이므로 언급을 피하기로 하고 남은 게 '호족의 노래'와 '보리와 밀' 두 편이다.  
이 가운데 '호족'은 갈등구조가 약한데다 결말이 환히 내다보이는 게 흠이었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보리와 밀'이다. 이 작품은 한마디로 무난한 동화이다. 이 무난함에서 벗어나는 일이 이 작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건투를 빈다.

### 강정규



▲1941년 보령 출생 ▲서라벌 예술대학 문창과,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 ▲1974년 '소년', 197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한국아동문학상, 세종아동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수상 ▲대표작 '다섯시 반에 맑은 시계', 동화집 '벼아리의 꿈' '토끼의 눈' '새가 날아간다'의 다수 ▲아동문학 계간문예지 '시와 동화'발행인, 현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회장.

**(서울) 퍼스트부동산**  
☎ (02) 515-8898 010-6245-5585

**전국 땅 팔 분**

**1천만 ~ 10억 즉시계약**  
물물교환도 환영

**대인동심일부동산**  
☎ (FAX) 223-1772, ☎ 011-602-2532 (영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영사건·판)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점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었던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산공인중개사**  
☎ 010-7154-8996 ☎ 062-972-8004

▶빌딩(임대용, 투자용)  
·토지 177평, 건물 740평 - 매가 30억  
보통급 16억/월세 7500/용자 6억

▶상가매매(천만)  
·아파트 5000세대 앞 1층 48평 - 매가 12억  
경매업종 : 의료, 편의점, 민영, 푸드

▶참고및 공장용지  
·서구 벽진동 184평 - 평당 140만  
·서구 덕흥동 900평 - 평당 85만  
·서구 우산동 550평 - 평당 65만  
·광산구 수안동 900평 - 평당 100만

● 구 합 ●  
·골프 연습장 부지 - 광주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창고부지  
·공시지가 50%미만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

**부동산 매각, 상속, 임대 등에 관하여 무료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금산공인중개사**  
T.081-5666 H.011-801-5354

**주요소부지 급매매**  
위치 : 해남군 강진군 경계 (성원면 국도변 최과목(천주천) 대지 1450평, 도로경유 1250평 87유주유소 허가 및 건축허가 특

**GS와 계약**  
(해남)3억 보영주유기 부지(4000평) 해남 원도진도 출발 상행선 광주도착 80km 특목직업으로 강진해남경계 아저침 지원

**매매가 3억**  
(금호동 새광주목 건너 2소(천주천) 상무신도실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 위 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4면 경관선)

■ 대 지 ■  
약 2850㎡, 가전 협외물결

·근린시설, APT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중심상업시설 가능  
·최고의 교통접근 (광주사실 접근성 6.18 경관선)  
·광주 최고의 상권 최고급 입지 상업지역  
·현재 10층 산책길 앞

**사무실 임대 [농성동]**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업무 최적 (현 금융기관 사용)  
▷주차장 완비  
▷지하철역 연계 (농성역)

● 임대면적 1층 / 200평  
● 용도 : 사무실

**임대문의**  
☎062)361-3001

**광문공인중개사**  
☎ 062-365-1920, 010-7637-7743 011-623-8972, 010-4703-6223

**광문부동산가서 전속계약을 하면**  
**극비밀리에 매매도 빨리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받아준다고 하더라**  
**그럼 나도 광문부동산 한번 가봐야겠네!**

●경기도 평택 인증→서해대교, 평택항 부근 (관광특구, 물류 중지지역 근접) 답→자연목지 약 7,484㎡ 급매매 ㎡당 13만원, 투자가치 최고 지역 년평균 평당 5만원 이상 상승지역

**(모텔) 임대, 매매 전문**

●순천·여수·광양지역 임대매매 다량 확보!  
●목포·해남지역 임대 매매 다량 확보!  
●전주·익산·군산지역 임대 매매 다량 확보!  
●광주·광역지역 임대 매매 다량 확보!  
●대전·수원·전국 물론 가능합니다.

●교환→ 토지, 대지, 임야 소유자께서는 현금이나 모뎀 물건과 물물교환도 환영합니다.  
**세상을 높게 넓게 펼쳐 드리는 부동산 컨설팅! 광문**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상가건물(롯데백화점 인근, 현 성업중)  
대 453㎡ / 건 2011㎡(사무나+월세21실+주택)  
- 수익률 15%이상 매매가 20억(실정 10억, 조정가)

▶상가건물(완도읍 여객터미널옆) 대 280㎡ / 건 989㎡(상가+모텔19실+주택)  
수익률 아주 좋은 매매가 10억(조정가)

토지(광주호상류-기동식당, 과수원, 임야)  
- 34,830㎡ 매매가 3.3㎡당 12만원(분할가)

▶농지(무안군 운남면) 23,600㎡(비닷가,계곡관리지역) 매매가 3.3㎡당 20만원

대지(신촌동) 764㎡(버스승강장, 전철역 5분거리)  
- 매매가 ㎡당 36만원(원룸, 빌라, 물류창고적합)

▶고시원(전대후론 체육공원 인근) 대 282㎡ 건 580㎡ (최근준공) 월52(월당 월임대료 23만원) 매매가 8억5천

대지(북구 신안동)402㎡(물류창고적합)  
- 매매가 3.3㎡당 150만원

▶농지(전.담양군 금성면) 883㎡ (관리지역) 매매가 3200만원(조정가)

농지(충효동-광주호상류)전 1,927㎡  
- 각종 유실수 100여 주식제, 매매가 ㎡당 925천(가격조정가)

▶기동식당(철출산국립공원 입구) 7,685㎡ 식당, 숙박업, 단란주점, 체육시설, 농장 모든시설 허가 필 - 매매가 3.3㎡ 당 32만원

**경매부동산상담, 대출상담, 각종부동산투자상담**  
**부동산투자클럽 공인 중개 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